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FAR EAST · CIS

극동·CIS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8/03~08/09

1. 카스피해·남캅카스 운송 경로 변화와 물동량 리밸런싱
2. 러시아-서방 제재 대응과 에너지·곡물 수출 물류리스크
3. FESCO 주도 대중·국내 컨테이너 운송 확대와 인프라 변화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2

종합

이번 주 극동 권역은 카스피해·남캅카스 운송 경로의 급격한 재편과 서방 제재로 인한 에너지·곡물 물류 리스크 심화가 핵심 흐름임. 러시아 카스피해 항만 물동량이 급감하고 BTK 철도 용량이 대폭 증가하며 중간 회랑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한편, 서방의 제재 확대와 흑해 군사 충돌은 러시아 수출 물류망에 이중 압박을 가하고 있음.

FESCO는 대중·국내 컨테이너 운송 확대와 인프라 강화로 제재 리스크를 우회하며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이러한 물동량의 지정학적 리밸런싱과 민간 대응이 맞물리며 향후 권역 물류 판도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카스피해·남캅카스 운송 경로 변화와 물동량 리밸런싱

카스피해·남캅카스 운송 경로에서 러시아 카스피해 항만의 2026년 6월 컨테이너 처리량이 전년 동월 대비 46% 가까이 급감한 반면, 바쿠-트빌리시-카르스(BTK) 철도의 연간 화물 용량이 10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5배 증가하며 중간 회랑으로의 물동량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러시아 카스피해 항만의 2026년 6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45.7% 감소함. 수입이 60.4%, 수출이 29.3%, 연안 운송이 52.1% 각각 줄어들며 전방위적 위축을 보임. 반면 일반 화물은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군수 물자 등 비컨테이너 화물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러시아항 컨테이너 감소는 서방 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운송사의 러시아 노선 기피, 해운·보험 서비스 제한, 대체 경로로의 화물 이탈이 복합 작용한 결과임. 특히 제재로 인해 러시아 항만의 글로벌 네트워크 접근성이 약화되면서 화주들이 리스크가 적은 경로로 선회한 영향이 큼.

동시에 2025년 6월 재개통된 BTK 철도는 조지아 구간 용량을 5배로 늘리며 중간 회랑의 핵심 병목을 해소함. 아제르바이잔-조지아-튀르키예를 잇는 이 노선의 증강으로 중국·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화물의 카스피해 횡단-철도 연계 운송이 더욱 안정화됨. 카자흐스탄은 이 경로를 자국 통과 화물 유치의 전략적 기회로 평가하며 유럽행 화물의 안정적 수송 기회를 강조함.

이에 따라 카스피해 항만 물동량은 러시아에서 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리밸런싱이 진행 중임. 러시아 항만의 컨테이너 기능은 약화되는 반면, 중간 회랑의 철도-해상 복합 운송은 강화되며 유라시아 공급망 내 남캅카스 경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

- 2026년 6월 러시아 카스피해 항만 컨테이너 처리량 전년 동월 대비 45.7% 감소, 수입 60.4%·수출 29.3%·연안 52.1% 감소.
- 동기간 러시아 카스피해 항만 일반 화물 처리량 60% 증가, 군수 물자 등 비컨테이너 화물 중심으로 추정.
- 2025년 6월 BTK 철도 재개통, 조지아 구간 연간 용량 100만 톤→500만 톤으로 5배 확대.
- BTK 철도 현대화로 30.3km 신규 선로 건설, 궤간 변경 시설 신설, 기존 153.1km 구간 복구.
- 카자흐스탄, BTK 철도를 중간 회랑 통과 화물 유치 경쟁의 유리한 고지로 평가, 유럽행 안정적 수송 기회 강조.

전망

러시아 카스피해 항만의 컨테이너 기능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BTK 철도 용량 확대는 중간 회랑의 신뢰성을 높여 화물의 남캅카스 경유 패턴을 공고히 할 전망이다. 다만 카스피해 항만의 선적 능력과 선박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철도 증설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의 항만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함. 향후 러시아 경유를 우회하는 유라시아 화물 경로 다변화 추세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화주 — 러시아 카스피해 항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BTK 철도 기반의 중간 회랑으로 운송 계약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포워더 — 중간 회랑 서비스 기획 시 카스피해 해상 구간의 선박 확보와 철도·해상 연계 시간표 정합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야 함.

항만·선사 — 카스피해 내 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 항만은 BTK 증강에 대응한 터미널 능력과 피더 선대 확충이 시급함.

참고자료: PortSEurope, Russia's Caspian ports handled 46% less TEUs, 60% more cargo · Transport Corridors,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연 500만톤 용량으로 재개통 · Transport Corridors, 카자흐,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개통... 연간 화물 500만t 기대 (검색일: 2026-08-09)

러시아-서방 제재 대응과 에너지·곡물 수출 물류리스크

서방의 제재 확대와 흑해 해상 공격 격화로 러시아의 에너지·곡물 수출 물류망에 이중의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음. 영국의 추가 제재는 그림자 함대와 금융 채널을 겨냥해 러시아의 제재 회피 역량을 축소시키는 한편, 흑해 지역의 군사적 충돌은 곡물 수출 경로의 불안정성을 높여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초래할 위험을 키우고 있음.

영국 정부가 러시아 전자상거래 은행 오존은행과 그림자 함대 선박 6척, 그리고 희귀 금속 수입 기업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함. 오존은행은 러시아 내 18위 규모로 약 9,000억 루블(11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사이나, 해외 자산 부재 및 스위프트(SWIFT) 미사용이라는 이유로 제재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함. 반면, 유가 상한제 회피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그림자 함대 선박 및 이를 중개한 인도 소재 선박 관리 회사를 제재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회 수출 경로에 실질적 타격을 가하는 모습임. 이로 인해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물류 비용과 리스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러시아 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한 정유시설 피해로 여름철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했었으며, 가즈프롬 네프트(Gazprom Neft)는 13개 지역에서 연료 구매 제한을 해제하며 상황이 다소 안정화되었음을 시사함. 그러나 연초 대비 휘발유 평균 가격이 19% 상승한 점은 국내 물류비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이는 전쟁 장기화 속에서 내수용 에너지 공급망조차 취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수출용 물량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흑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상호 공격이 농산물 수출 시설과 상선을 겨냥하는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곡물 수출 물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함. 러시아 교통부는 아조프-흑해 해역에서의 상선 보호를 위해 국방부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체 화물 경로 개발에 착수하는 등 대응에 나섬. 그러나 러시아 곡물 수출업자 연합은 이 같은 공격이 지속될 경우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조만간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글로벌 밀 가격 상승과 식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러한 이중 리스크는 러시아의 수출 물류 전반에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냄. 서방 제재는 금융·해운 부문의 접근을 제한하고, 흑해의 군사적 위험은 물리적 운송을 위협함. 러시아 정부는 국내 은행의 독자적 결제망 가동, 그림자 함대 활용, 육상 대체 경로 개발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것이 단기간에 물류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임. 결과적으로 러시아산 곡물·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식량 안보와 물가에도 전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 영국, 오존은행(자산 9,000억 루블·약 110억 달러)과 그림자 함대 선박 6척 및 인도 선박 관리 회사를 제재해 러시아의 제재 회피 물류 차단
- 러시아 내 휘발유 가격, 연초 대비 19% 상승하며 정유시설 드론 공격 여파로 내수 물류비 증가
- 가즈프롬 네프트, 13개 지역에서 연료 구매 제한 해제했으나 가격 상승 억제에는 미흡
- 러시아 교통부, 흑해 상선 보호를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및 대체 화물 경로 개발 착수
- 러시아 곡물 수출업자 연합, 흑해 공격 지속 시 곡물 수출 중단 가능성 경고, 글로벌 밀 가격 상승 우려

전망

향후 흑해 해상 안보 불안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 곡물 수출은 차질이 불가피하며, 글로벌 곡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방의 제재는 그림자 함대와 금융 채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우회로가 축소될 것임. 러시아는 대체 운송 수단 확보와 동맹국 협력을 통해 물류 병목을 완화하려 하겠으나, 단기적 리스크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시사점

항만·선사 — 흑해 항만 운영사들은 추가 화물 처리와 선적 속도 향상에 대비하고 있으나, 선박 안전 리스크로 운임 상승과 보험료 인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화주 — 에너지·곡물 화주는 물류 중단에 대비한 재고 확보와 대체 경로 발굴이 시급하며, 특히 중동·아프리카 바이어는 공급망 다변화를 서둘러야 함.

포워더 — 제재 대상 선박 및 금융 채널을 우회하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와 대체 결제 시스템 활용이 경쟁력으로 부상함.

참고자료: The Moscow Times, UK Sanctions Ozon Bank and 'Shadow Fleet' Vessels in Latest Crackdown · The Moscow Times, Gazprom Neft Lifts Fuel Purchasing Limits Across 13 Russian Regions · The Moscow Times, Russia Steps Up Ship Protection in Black Sea as Attacks Threaten Grain Exports (검색일: 2026-08-09)

FESCO 주도 대중·국내 컨테이너 운송 확대와 인프라 변화

FESCO가 대중국·국내 컨테이너 운송을 확대하고, 신규 철도 서비스와 Rail Jet을 통해 인프라를 강화함에 따라 러시아 물류 시장의 서비스 다양화와 운송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음.

FESCO는 모스크바주 첼홉 복합물류단지에서 치타-1역까지 정기 컨테이너 열차를 신설하여 국내 철도 서비스망을 확장함. 월 2회 운행, 평균 소요 시간 9일, 월간 최대 250TEU의 소비재·식품·건자재를 수송하며, 첫 열차는 80TEU를 적재하여 8월 1일 치타에 도착함. 또한 모스크바·자바이칼 지역의 도어투도어 화물 운송도 제공됨.

대중국 서비스인 Rail Jet은 연초 대비 8배 증가한 패션 상품 운송량을 기록하며 주간 450~480m³ 처리 중임. 훈춘-우수리스크-모스크바 야로슬라프스카야 구간을 여객 열차 스케줄로 9일 내 긴급 수송하며, 러시아 대형 패션 기업과의 협력 확대가 주된 원인임. 이는 대러시아 소비재 공급망의 속도와 안정성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한 결과임.

이러한 서비스 확대는 러시아 내륙 및 동서 물동량 증가를 촉진하고, 2026년 6월 러시아 항만 처리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음. 컨테이너 운송의 다각화는 배후 물류망 혼잡 완화와 수입 대체 경로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인프라 집중 투자가 특정 지역에 편중될 경우 지역 간 물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음. FESCO의 아톰에너지프롬 자회사 편입 이후 공적 투자 성격이 강화되어, 상업성과 전략적 목표 간 조화가 관건임.

- FESCO, 모스크바주 첼홉-치타 정기 컨테이너 열차 신설: 월 2회, 9일 소요, 최대 250TEU/월
- 중국발 Rail Jet 서비스: 연초 대비 8배 증가, 주간 450~480m³, 훈춘-우수리스크-모스크바 9일
- 러시아 대형 패션 기업들의 Rail Jet 활용 확대가 물동량 증가 견인
- 2026년 6월 러시아 항만 처리량 전년 대비 16.4% 증가 (SeaNews)
- 도어투도어 서비스로 모스크바-자바이칼 지역 운송 편의성 제고

전망

FESCO의 철도 및 복합운송 확장은 대중 수입 화물의 내륙 유통망을 강화하고, 향후 동서 물류 축의 기능을 재편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노선 흑자 전환과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 변동성 대응과 민간 물류사와의 경쟁 구도 관리가 필요함.

시사점

화주 — 중국발 소비재 수입 시 9일 내 모스크바 도착의 긴급 운송 옵션이 확대되어 재고 관리 유연성 개선.

포워더 — FESCO의 정기 열차 서비스 증가로 대체 노선 확보가 용이해지나, 자체 네트워크 차별화가 필요.

항만·선사 — 항만 처리량 증가 속에서도 철도 직결 서비스가 강화되면 항만 물류 부가가치가 감소할 가능성 존재.

참고자료: RZD-Partner, FESCO запустила регулярный контейнерный поезд из ТЛК «Чехов» в Читу · RZD-Partner, FESCO в восемь раз с начала года увеличила перевозки товаров индустрии моды сервисом Rail Jet из Китая в Россию · SeaNews EN, Russian Ports' Throughput in June 2026 Up 16.4% (검색일: 2026-08-09)